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분석

An Analysis of the Premarital Preparation Education Program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교수 문숙재*
석사과정 정영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윤소영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Moon, Sook-Jae
Master's course: Jung, Young-A
Korea Culture & Tourism Policy Institute
Chief Researcher: Yoon, So-You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oday, the Korean society is experiencing an increase in serious problems, such as child abuse, unmarried mothers, single mothers, which cannot be overlooked as simply trivial family matters. The increase in these problems is caused by the rapid change that has taken place within our society, which has emasculated the power of our traditional values and behavior patterns to cope with contemporary life styles. Premarital Preparation Education is starting to gain attention as a preventive measure that can overcome this serious family crisis. Although the importance of the Premarital Preparation Education program cannot be overemphasized, there are only few cases where engaged couples and unmarried men and women are exposed to this type of program and actually experience its benefits. In other words, there is an urgent need to revitalize and increase the effects of the Premarital Preparation Education Program. This research was conducted in order to find a way to revitalize and to

* 주저자, 교신저자: 문숙재 (sjmoon@ewha.ac.kr)

increase the effects of the program, so that more and more people can participate and receive benefits from it. First, we have analyzed the program's contents and the current condition on how the program is actually conducted. Then we have compared real case examples of the program and analyzed the current situation and its problems.

Key Words : 가족생활교육(Family life education),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premarital preparation education program)

I. 서론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가치관의 혼재와 불확실성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인식된다. 대표적으로 개인의 삶의 근간이 되고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구성원의 일원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가족형성과 이를 둘러싼 가치관에 대한 커다란 변화가 그것이다. 전통적으로 확대가족을 중심으로 한 혈연중심의 문화에서 도시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핵가족의 형태로 이행되는 과정을 거쳐, 최근에는 개인주의적 사고와 생활의 편리성 중시, 그리고 일-가족 갈등의 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만혼현상, 독신가구 증가, 저출산 문제 등의 새로운 가족문화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가족형성 및 확대와 관련된 문제뿐 아니라 안정성의 문제도 급속도로 증가하여, 결국 가족해체 및 그로 인한 전반적인 가족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 보고에 의하면 2004년 한 해 동안 139,365쌍(1일 평균 381쌍)이 이혼을 하고, 중·고등학생의 3.9%는 이성친구와 성관계를 가져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4), 상습적으로 음주폭력을 휘둘러 오던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사건(동아일보, 2005.11.17)이나, 장롱 속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대구의 김태식(가명·4)군 사건, 아버지 고향 선배에게 성폭행 당한 후

암매장된 충북 진천의 최은희(13·여)양 사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신생아 학대사건 등의 아동학대 문제(국민일보 2005.10.25), 미혼모문제, 편모문제 등 단순히 가정문제로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와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간을 되짚어보면, 사회의 변화와 가치관의 혼란속에서 '가족'이란 무엇이며, '왜' 가족을 일구어 살아야 하는지, 또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부족한 원인을 들 수 있다. 태어나면서 당연히 가족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전부인 과거에서 다양하고 개별적인 선택이 가능해진 삶으로 이동하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곧 생애설계의 출발이며, 다른 한편 결혼생활준비의 시작인 것이다.

정보화 시대의 개인주의 사회에서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또는 가족생활의 가치관을 교육하는 곳으로서 가족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가족의 안정성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정현숙, 2004). 이 심각한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대안과 대책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예방차원으로 결혼준비교육이 주목 받고 있다. 따라서 결혼준비교육이란 풍요로운 결혼생활을 하기 위한 지식과 태도, 철학, 대화기술, 문제해결 기술 등을 전반적으

로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김혜석, 1990)을 말한다.

낭만적인 사랑의 강조로 젊은 부부들이 이상과 실제 결혼생활의 영위에서 나타나는 가족 내의 역할과 새로운 지위로의 적응, 다양한 인척관계의 조정과 실생활의 책임 등의 문제에 미리 준비하지 못한다(고선주 외, 2003)고 한다. 결혼준비교육은 그런 길을 미리 예상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결혼준비교육을 통해 의사소통의 기술, 문제해결 기술, 남편과 아내의 역할, 그 역할에 대한 책임, 자녀교육방법, 부부의 성생활 등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지식 습득을 할 수도 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가족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건전한 사회를 이루어내는 든든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하여 가정을 이루고자 출발하려는 예비부부들에게 결혼준비를 시키는 일은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임이 분명하다(이영호 외, 2004).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2005년 1월부터 ‘건강가정 기본법’이 제정 시행되었고, ‘건강가정기본법’을 근거로 각 시,도, 군을 중심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건강지원센터는 시, 도, 군을 중심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 접근이 용이해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작단계로 홍보가 부족하다.

이처럼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매우 크지만, 실제 예비부부나 미혼 남녀에게 노출되어 경험하게 하는 경우는 매우 낮다. 즉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효과증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 마련을 위해서 수행되었다. 따라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과 운영방법 등 현황을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사례를 비교하여 그 운영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서 향후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제공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결혼준비교육의 개념

결혼준비교육이란 결혼상대가 정해진 사람들이나 미혼자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행해지는 교육(홍달아기·신현실, 2001)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결혼준비교육은 광의와 협의의 결혼준비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광의의 결혼준비교육은 구체적인 결혼상대가 정해지지 전에 행해지는 결혼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교육이다(Howse, 1982; 박미경·김득성, 1997) 즉,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미 가정이나 학교 등을 통해서 행해지고 있는 교양교육으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이다. 이러한 광의의 결혼준비교육은 넓은 의미로서의 결혼준비교육으로 ‘결혼과 가족생활교육(Marriage and family life education)’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영호외, 2004).

협의의 결혼준비교육은 광의의 결혼준비교육의 기초위에 구체적인 결혼상대가 정해진 커플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결혼생활, 즉 부부 적응 과정을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행해지는 교육이다. 이는 ‘결혼 전 교육(premarital education)’ 또는 ‘결혼준비(marital preparation)’, 더 넓게는 ‘결혼상담(marital counseling)’과 더 가까운 개념이다.(박미경·김득성, 1997)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국내의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협의의 결혼준비교육을 말하며, 이에 포함되는 내용

으로는 의사소통, 성생활, 결혼에 대한 헌신, 갈등해결, 자기 이해, 근원가족, 역할 기대 등이 일반적이다. 협의의 결혼 준비교육은 예비 부부가 결혼을 성공적으로 준비하도록 돕는 공식적인 사회화 기회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결혼준비교육과 구분된다(박미경·김득성, 1997 ;이영호외, 2004).

2. 결혼준비교육의 시대적 현황 고찰

공식적인 결혼준비교육은 1924년 보스턴 대학에서 어니스트 그로브(Ernest Groves)에 의해 ‘결혼 및 가정생활 준비(Preparation for Marriage and Family Living)’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정규과목이 시작되었고, 1930년대 초 메릴 파벨 연구소에서 처음으로 결혼준비교육이 시작되었다(Stainbrook, 1978; 김혜석, 1990). 이후 결혼준비교육의 성격은 제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일차적으로 변화되고, 다시 70년대 들어 변화된다(김혜석, 1990).

2차 세계대전 이전에 결혼준비에 관심을 가졌던 학문은 신학과 심리학이었으며 관련 전문가 역시 성직자, 의사, 정신건강 전문가들로서, 이 시기의 결혼준비교육은 결혼과 관련하여 정보 제공적인 초보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 의한 결혼준비는 종교의식을 통해 치러지는 결혼의식 때문에 또는 혼인신고를 위한 혼전 신체검사의 일환으로서 일반적으로 표면적 필요성에 불과한 행위로서 이루어져 왔다. 즉, 결혼의식 자체의 본질과 의미에 중요성이 부과되어 주로 개인에 초점을 두고 병리적이거나 역기능적인 측면의 접근이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을 중심으로 혼전 상담이나 결혼준비에 대한 간단한 교육이 이루어 졌는데, 결혼관계에서의 문제를 개인내 문제의 결과로 이해하였다(Stahman & Hiebert, 1987; 오윤자, 2001).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결혼준비교육의 관점이 개인에게서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관계와 상호작용적인 측면으로 변화하여 관계 속에서의 유대감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이영호외, 2004). 이러한 배경 하에 Butterfield(1956)는 가족생활과 결혼관계에 잘 기능하는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고, Ellis(1961) 역시 결혼 준비의 기초적 요인으로 자아발전, 개인으로서의 지속적인 성장,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기술을 소유해야한다고 언급하였다(Stahmann & Hiebert, 1987; 오윤자, 2001). 그러므로 이시기에는 결혼준비교육이 문제 있는 결혼을 유형화하는 단계로 발달은 하였지만, 결혼준비교육에 있어서는 여전히 문제 중심의 치료 및 회복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을 띠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결혼준비교육은 개인중심의 치료적인 관점의 단순한 정보제공에서 교육에 의한 관계지향적인 인간 잠재력의 향상적인 접근으로 발전되어 왔다(오윤자, 1998; 이영호 외, 2004). Mace(1979)는 결혼준비를 통하여 촉진적 성장을 추구하고 관계와 욕구향상을 위한 수단과 기술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시하였으며, Olson(1992)은 결혼준비교육에 대해 ‘준비’의 관점으로 바꾸어 예방과 교육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부터 종교기관, 평생교육기관과 시민단체, 대학 등에서 공식적인 결혼준비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하였으며(이숙희·전영주, 2004), 그 내용은 주로 미혼여성이나 예비신부들을 대상으로 요리, 예절, 살림살이와 부덕 등의 일반교양교육과 가정관리, 결혼관을 포함하였다(고선주 외, 2003). 1980년대에는 결혼준비교육의 대상이 남녀 모두로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대단위 강좌 뿐 아니라 상담형식의 교육도 나타나기 시작하였

다. 이때 주요한 교육으로는 서울 YMCA의 결혼강좌,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교육원의 혼인준비교실, 두란노서원의 결혼예비학교, 새세대 육영회의 예비부모교육, 서강대 철학과 의 결혼준비특강 등이 있다.

1990년대 이후에는 결혼준비교육이 교회단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들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교육이 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종교적 색채가 강해서 대중화되지 못하거나 외국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두어 우리나라 부부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또한 1990년대부터 가정학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결혼준비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결혼준비 교육에 대한 기초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고선주 외, 2003).

21세기로 들어서면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즉 이혼가족의 급증, 실업문제와 신용불량자의 증가, 아동·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출산율 저하,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문제 등을 더 이상 가정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문제로 인식해야만 하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위기에 처한 가정을 가족생활교육과 상담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가정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보호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사후해결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차원에서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여 관련 가족정책이나 법제도 정비에 힘쓰고 있다. 그 결과 2005년 1월부터 ‘건강가정’ 기본법¹⁾이 제정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건강가정사업 중 교육사업 분야에

서 위기가정, 이혼가정, 요보호가정의 갈등 해소, 위기극복, 가족해체 방지를 위해 건강가족을 위한 생활설계교육, 가족생활교육, 부모교육,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중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은 가정을 이루기 전 단계인 미혼 남녀나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결혼초기 갈등이나 문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여 가정해체를 방지하고 건강성을 증진시키는 교육으로 주목받고 있다.

법제도를 통해 결혼준비교육을 강조하는 사례는 대만의 경우(한국경제신문, 2003.1.10)에도 찾아볼 수 있다. 대만에서는 이혼율감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가정교육법”을 제정하여 급증하는 이혼을 줄이는 측면에서 결혼의 의미와 가족에 대한 책임감 등을 가르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예비부부교육 수료증이 있어야 결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 마련을 위한 이전 단계의 작업으로서,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방법 등 현황을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서 실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비교하여 그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학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한국학술정보(주); <http://kiss.kstudy.com>)에서 키워드 ‘결혼준비’나 ‘예비부부’로 검색하여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1) ‘건강가정기본법’이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2004. 2. 9, 법률 제7166호)을 말한다.

관련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의 선행연구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혼준비교육의 시대적 고찰에서 살펴보았듯이 1990년대 이후에는 결혼준비교육이 교회단체로 더욱더 확대되었으며, 가정학자들에 의해서 결혼준비 교육에 대한 기초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1990년 이후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을 가정학·신학 접근을 중심으로 결혼준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제안된 이론적 모델이 실제 관련 기관에서 어떻게 적용·실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관련 기관에서 실시 중인 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공공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선행연구²⁾에서 지적된 유관 단체나 법인을 중심으로 각 기관을 선정하여³⁾ 현재 진행 중인 결혼준비 교육프로그램을 조사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IV. 결혼준비 교육프로그램 분석

1. 국내 연구논문 분석 : 1990년 이후 가정학·신학 접근을 중심으로

국내의 결혼준비 교육프로그램은 70년대 결혼준비교육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90년대부터 더욱 확대되면서 결혼준비 교육에 대한 기초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이영호외, 2004). 이에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이 확대되기 시작한 90년 이후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가장 활발하게 연구활동이 나타난 학문분야로는 가정학과 신학의 접근이다. 여기에서는 두 학문분야의

접근을 중심으로 국내 논문들을 분석해본다.

1) 가정학 접근

최근 30여 년 동안 한국 가족은 많은 변화를 하였다. 3대 직계가족은 감소하고 노인인구는 증가했으며 단독 가구가 증가하고 이혼이 늘어나는 가운데 편부모 가족과 재혼가족이 증가해 왔으며 맞벌이 가족도 증가했다. 만혼현상이나 1인 독신자의 숫자가 증가하였으며, 자녀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하여 이른바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사회적 이슈도 낳았다. 이러한 변화를 살펴보면 그간의 가족변화가 대략 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하여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90년대 중반 이전까지의 가족변화는 가족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필요성 내지는 가족의 기존개념을 흔들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가족의 변화는 가족과 결혼에 관한 기존의 개념이 변질되고 있다. 가족과 결혼에 관한 개념의 변화는 결혼과 가족이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되어가고 있다는 점과 성, 가족 내의 지위와 역할 등에 관련된 기존의 질서가 해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서선희, 1998)는 것이다.

이런 배경으로 1990년대부터 가정학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결혼준비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후 지금까지 개발된 국내의 결혼준비 교육프로그램은 결혼 생활 전반에 걸친 영역을 다루는 일반적인 결혼준비교육의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서도 실제 구성내용은 개발자의 전공 특성이 반영되어 가족의 기능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가족의 기능론적 관점에서 순환모델은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변화를 가정하는 가

2) 고선주 외(2003), 홍달아기·신현실(2001), 이영호 외(2004) 연구에서 언급되었듯이 1980년~90년대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은 사회단체와 종교단체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3) 조사된 기관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단법인기관, 종교기관, 기타기관 등이다.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분석

<표 1> 결혼준비 교육프로그램 실행연구 : 가정학 분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세부 내용	
결혼준비성인교육프로그램	연구자	김혜석
	목적	부부 적응 능력을 키우고, 결혼 생활에 도움 요청을 용이하도록 하며, 지지 집단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것
	대상	예비부부
	내용	결혼준비도 평가, 결혼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제공, 의사소통과 갈등해결기술, 예비부부의 일치증진, 스트레스에 대한 대비
	출처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박사청구논문(1990)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I	연구자	정민자
	목적	미래의 부부간의 질과 가족관계를 향상시키고 부부 또는 가족의 안정성과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
	대상	예비부부
	내용	자아상, 결혼생활과 가치관, 성지식, 의사소통훈련, 성 역할
	출처	대한가정학회지(1996)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연구자	박미경·김득성
	목적	개인의 자각 증진과 결혼에 대한 대처능력을 증진시키는 것
	대상	예비부부
	내용	결혼에 대한 기대와 현실, 자기이해와 차이수용, 관계에서의 역할과 친밀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출처	대한가정학회지(1997)
교육학적 관점을 기초로 한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연구자	오윤자
	목적	배우자와 결혼에 대한 바른 이해로 성숙한 결혼 유도와 상호 친밀감 및 성생활에 대한 교육으로 안정된 결혼생활 지원
	대상	대학생
	내용	건강가족의 특징 및 행동변화를 위한 실천, 예비배우자에 대한 상호간 이해하기, 바람직한 결혼의 동기, 의사소통기술, 성생활지도 생활공동체에 대한 이해, 효율적인 의사소통방법
	출처	한국가족관계학회지(2001)
교과과정으로서의 결혼 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 연구	연구자	홍달아기·신현실
	목적	대학생들에게 결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키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 것
	대상	대학생
	내용	사랑의 의미, 배우자 선택, 성격과 성장배경 이해, 자아존중감 증진, 효율적인 의사소통, 갈등해결, 결혼적응, 역할분담, 건강한성, 재정관리, 결혼준비
	출처	한국가정학회지(2001)
예비부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구성	연구자	백지은·서선영·신수진
	목적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독립과 소속을 통한 관계 향상과 성장
	대상	예비 부부
	내용	사랑과 애착을 통한 관계이해, 성에대한 이해,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습득, 결혼의 의미와 가족관계에 대한 정보습득
	출처	한국가족관계학회지(2003)
가족 및 관리의 통합적 접근에 기반한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행복한 부부생활을 위한 결혼준비프로그램	연구자	고선주·이현아·이기영·최진아·유우영
	목적	예비부부들에게 관계적인 측면과 더불어 자원관리 교육
	대상	예비 부부
	내용	결혼의 의미와 기대, 부부간 의사소통, 사랑과 성, 올바른 우리의 성, 생활설계
	출처	대한가정학회지(2003)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개발 -시민단체의 활동 중심으로-	연구자	이영호·최보아·서미란·지영숙
	목적	결혼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몸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여 계획적이고 건전한 결혼준비를 하게 함
	대상	미혼남녀로 커플이 아니어도 됨
	내용	결혼에 대한전반적인 이해, 사랑과 결혼, 관계향상 대화법, 생활설계, 성에 관한 이해, 혼례예절
	출처	한국가정관리학회지(2004)

족체계에 대한 순환모델로서, 가족체계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이 관점에서는 가족이 모델의 어떤 위치에 해당하는가를 정하는 것보다 가족의 기능에 대해 가족이 인식하고 있는지를 더 강조한다. 순환모델은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이라는 세 가지 차원을 포함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결혼 초기는 개인적, 가족적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는 동시에 부부 2인 관계에서 확립된 패턴을 조정하여 부부간의 새로운 응집과 적응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은 부부나 가족의 응집과 적응의 차원을 따라 이동하면서, 가족의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쳐 응집과 적응을 더 악화시킬 수도 혹은 향상시킬 수도 있는 역할을 담당한다(Galvin,

1996; 방현주·이기숙, 2002). 이런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가정학분야에서 결혼준비 교육 프로그램은 가족기능의 특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가정학분야의 결혼준비 교육프로그램은 대상별-예를 들어 대학생, 예비부부 등-로 교육내용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표 1 참조). 실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박미경·김득성(1997)의 연구와 백지은·서선영·신수진(2003)의 연구에서는 의사소통기술과 생활설계 및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 등 실제 결혼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대상을 대학생으로 제한한 오윤자(2001)의 연구와 홍달아기·신현실(2001)의 연구에서는 결

<표 2> 프로그램 주제별 내용 구성 : 가정학 분야

프로그램명	연구자	내 용												대 상 자	
		결혼 이해	자기 이해	친인척 관계	사랑 친밀감	역할 기대	의사 소통	성	갈등 해결	재정 관리	가사 노동	법률 정보	결혼 식		생활 설계
결혼준비성인교육 프로그램	김혜석 (1990)	○			○		○		○				○		예비부부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 I	정민자 (1996)	○	○						○	○					예비부부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준비 프로그램	박미경 외 (1997)	○	○	○		○	○	○	○	○	○				예비부부
교육학적 관점을 기초로 한 결혼준비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오윤자 (2001)			○	○		○	○			○		○		대학생
교과과정으로서의 결혼준비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연구	홍달아기 외 (2001)	○	○		○	○	○	○	○	○					대학생
예비부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구성	백지은 외 (2003)	○		○	○		○	○	○						예비부부
가족 및 관리의 통합적 접근에 기반한 결혼준비 교육프로그램	고선주 외 (2003)	○		○	○		○	○	○						예비부부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결혼준비프로그램 개발	이영호 외 (2004)	○		○				○	○				○	○	미혼 남녀 커플이 아니어 도됨

혼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보다는 결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키기 위한 결혼가치관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교육 대상에 따라서 교육내용과 목적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학교과목의 일환으로 실행된다는 점에서 교육회수를 보통 한 학

기 단위를 정해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반면,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는 직장인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훨씬 짧은 회차로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한편, 결혼준비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구성에 대해 각 연구에서 제안하거나 실제 실행한 항목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몇 가지 영역

<표 3> 결혼준비 교육프로그램 선행연구 : 신학 분야

제 목	프로그램세부내용	
	연구자	양귀원
목회에 대한 교육적 접근/예비부부에 대한 교육	목 적	성서에서 비춰지는 가정의 본질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도록 돕고, 가정의 본질을 충실히 실천해 나가기 위해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를 결단하도록 돕는 것
	대 상	예비 부부
	내 용	결혼에 대한 정의, 성경을 통한 행복한 부부관계 이해 성경적인 가정관에 대한 이해
	출 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활천(1991)
결혼준비교육을 위한 모형	연구자	이현숙
	목 적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결혼에 대한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만남과 대화의 장을 통해서 건강한 결혼 생활을 준비하도록 돕는데 목적
	대 상	결혼을 3개월 정도 앞둔 예비 부부
	내 용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의 부부역할 갈등극복방법, 삶의 계획
출 처	교육교회(1993)	
가정교육 예비부부교실	연구자	고병호
	목 적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꾸밀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
	대 상	예비 부부
	내 용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정,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 행복한 부부의 생활 원리
출 처	교육교회(1994)	
결혼예비학교	연구자	황영란
	목 적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들이 신앙적으로 결혼과 가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결혼을 준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적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
	대 상	예비부부
	내 용	성경적인 결혼관 말씀을 통한 남편과 아내역할 배우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가정세우기
출 처	교육교회(2005)	

에서 공통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주제나 결혼전반에 대한 내용-구체적으로 의사소통, 성생활, 결혼에 대한 헌신, 갈등해결, 자기 이해, 근원가족, 재정관리기술, 부부 역할, 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 등-은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방식에서 지식의 발견, 워크북 이용, 토론 등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과 자기평가 실시방법은 대부분의 프로그램 실행과정에서 나타난다(표 2 참조).

프로그램의 내용구성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가정학적 접근의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의 내용은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이것은 가족의 기능을 강조하는 가정학의 학문적 배경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의사소통은 가족 기능론적 관점에서 가족기능 향상에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훈련이 부족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결혼한 부부의 주요 과업은 상호이해와 친밀감을 증진시키는 의사소통 방식을 개발하고 확립하는 것이며, 성숙한 방식으로 의사소

통 할 수 있는 능력은 결혼의 친밀감을 성장시키는 본질적이고도 기초적이 기술이다. 의사소통 기술 부분 다음으로는 갈등해결방법과 성에 대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결혼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을 바탕으로 하여 역할 기대와 의사소통, 갈등해결을 초점으로 하는 방식을 교육방법으로 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방식은 심리적인 면에서 관계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예비부부에게는 성생활 의사소통의 문제정도와 부부갈등정도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방현주·이기숙, 2002)에서 보듯이 성생활에 관한 지식과 성에 대한 서로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결혼준비교육은 결국 미래를 바라보는 장단기 가정의 계획을 세우는 차원에서 준비되고 계획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영호 외 연구(2004)에서는 생활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결혼을 앞둔 미혼남녀의 결혼준비는 단기적인 결혼시작의 문제뿐 아니라 자신의 생애설계 속에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방법과 장기적인 설계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 있다.

〈표 4〉 프로그램 주제별 내용 구성 : 신학 분야

프로그램명	연구자 및 기관	내 용											대상자			
		결혼 이해	자기 이해	친인척 관계	사랑 친밀감	역할 기대	의사소통	성	갈등 해결	재정 관리	가사 노동	법률 정보		결혼식	생활 설계	
목회에 대한 교육적 접근 / 예비부부에 대한 교육	양귀원 (1991)	○						○								예비부부
결혼준비 교육을 위한 모형	이현숙 (1993)				○	○						○				결혼 3개월전 예비부부
가정교육 예비부부 교실	고병호 (1994)	○							○							예비부부
결혼예비학교	황영란 (2005)	○							○					○		예비부부

2) 신학 접근

신학분야에서 결혼준비에 대한 교육은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일차적으로 변화 하였다. 2차 세계대전 전의 결혼 준비는 결혼에

대한 성경적 의미, 가정에서의 신앙위치, 결혼 예식의 리허설 등을 일종의 교수적 형식으로 가르쳤다고 한다면, 2차 대전 후에는 목회 상담의 차원에서 행해졌다는 것이다.

<표 5> 실시 기관별 결혼준비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프로그램명	대상	주요내용	비용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용산구건강 가정지원센터	행복면허 취득하기	예비 부부	결혼의 의미와 결혼의 동기 결혼의 의무와 권리 결혼생활에서의 현실적인 기대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요소들	무료
	강북구건강 가정지원센터	우리 결혼할까!	결혼을 앞둔 미혼 남녀	서로에 대해 좀더 알기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이루기 우리는 언제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무료
	서초구건강 가정지원센터	결혼준비교육	예비 부부	자신에 대한 이해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기술, 갈등해결방법	무료
	여수시건강 가정지원센터	국제결혼 예비부부교육	국제 결혼부부	국제결혼 부부의 문화적 차이 이해 부부간의 관계 향상 도움으로 결혼안정성증진	무료
사단 법인	사)한국행복 가정상담소	결혼예비교육	일반인	서로의 성격과 가치관, 생활양식이해, 의사소통기술, 갈등해결방법, 성생활	-
	사)청년여성 문화원	혼인준비교실	미혼남녀	혼인생활의 이해, 성생활, 생활설계, 혼례예절과 실습	무료
종교 단체	명성교회	신혼부부대학	결혼3개월 이내부부	신앙생활 및 경건한 가정생활을 위한 교육	무료
	성결교회	예비결혼학교	미혼남녀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 자아상이해, 남녀의 특성 및 차이, 의사소통,라이프사이클,	유료
기타	건강문화원	결혼예비학교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자아상의 이해, 결혼가치관이해,라이프사이클이해,의사소 통기술,성생활, 가정 법률의 이해	무료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모임	결혼! 알고해야합니다.	미혼남녀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이해 생활설계, 성 태도와 성역할, 의사소통기술	무료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결혼아카데미	남녀 누구나	결혼에 대한 정의, 나와 너의 차이인정하기, 결혼과 관련된 법과제도, 성이야기, 결혼과 경제, 의사소통방법과 결혼과 가족	무료
	한국결혼지능 연구소	커플 &예비부부 교육프로그램	커플 &예비부부	건강한 결혼, 갈등해결방법, 결혼가상체험	유료
	YMCA	결혼준비교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미혼남녀, 일반시민	결혼에 대한 이해, 가족관계 법률의 이해, 부부갈등해소방법, 결혼중장기계획 및 혼수준비	유료

<표 6> 프로그램 주제별 내용 구성 : 실시기관별

프로그램명	기관	내 용												대상자	
		결혼이해	자기이해	친인척관계	사랑친밀감	역할기대	의사소통	성	갈등해결	재정관리	가사노동	법률정보	결혼식		생활설계
행복면허취득하기	건강가정지원센터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				○	○						예비부부
우리결혼할까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		○			결혼전 미혼남녀
결혼준비교육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	○		○				○	예비부부
국제결혼 예비부부교육		여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		○					국제결혼 부부
결혼예비교육	사단법인	사) 한국 행복가정상담소	○	○			○	○	○	○				○	일반인 20세이상 남녀
혼인준비교실		사) 청년 여성문화원	○	○				○	○			○	○		미혼남녀
신혼부부대학	종교	명성교회	○												예비부부
예비결혼학교	단체	성결교회	○	○			○	○						○	예비부부
결혼예비아카데미	기타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	○				○	○	○			○		결혼전 남녀 누구나
결혼! 알고해야 합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모임	○		○		○		○					○	미혼남녀
커플&예비부부		한국 결혼지능연구소	○		○	○		○	○	○				○	커플& 예비부부
결혼준비교실		YMCA	○							○			○		예비부부, 미혼남녀, 일반시민

신학분야에서 교회와 가정은 분리 될 수 없고, 가정 안에 온전함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정사역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결혼준비교육은 가정사역의 한 부분으로 현대 가정이 변화하면서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교회의 교육적 기능과 교육 공동체로서의 특성을 살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능의 활성화와 가정목회의 필요성에 대한 현실적 요청 때문에 활성화되었다. 특히 1990년대 본격적으로 교회단체에서 실시하는 결혼준비 교육프로그램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고선주 외, 2003).

1990년대 이후 신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결혼준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은 가정내 종교생활의 한 측면으로 제시되고 있다(표 3 참조). 교육프로그램의 대상은 모두 신도 가운데 예비부부로 한정되며, 결혼에 대한 가치를 종교와 연관하여 교육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가정학 접근에서 가정의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한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한 교육이 주를 이루었다면, 신학 분야에서는 기술적인 측면의 교육보다는 가치와 원칙을 중시한다. 구체적으로 신학 분야의 프로그램 내용은 종교를 바탕으로 한 결혼이해, 즉 결혼가치관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결혼이해, 의사소통, 갈등해결, 생활설계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표 4 참조). 결국 신학분야의 결혼준비교육의 목적은 성경에 비취진 결혼가치관에 대한 이해로서, 가정 안에서 종교활동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학분야의 각 연구들에서 차이를 나타낸 부분은 교육방법적인 측면이다. 양귀원(1991)의 연구는 강의 및 세미나, video상영 및 토론, 사례발표 및 토의, 성서연구, 독서토론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이현숙(1993)의

연구에서는 실험적 리허설, 역할 놀이, 브레인스토밍 등의 방법으로 체험되도록 했다. 그리고 고병호(1994)의 연구에서는 과제물, 편지쓰기, 기도회 등의 방식이 사용되었다.

2. 기관의 결혼준비 교육프로그램 분석

1990년대 이후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이 가장 활발하게 연구된 가정학·신학 접근을 통해서 제안된 이론적 모델이 실제 관련 기관에서 어떻게 적용·실행되고 있는지 관련 기관에서 실시 중인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해보면 <표 5>, <표 6>과 같다.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2005년 1월 1일부터 건강가정기본법의 시행과 함께 각 시·도·군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립되었으며, 이 센터를 중심으로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건강한 가정의 구현에 기여를 목적으로 가정생활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되는 결혼준비 프로그램⁴⁾은 모두 단기간 무료로 실시되고 있었다. 각 센터는 프로그램의 세부목표와 구체적인 교육내용에서는 차이를 나타냈다. 예를 들어 숙명여대 가정관련 학과와 연계된 용산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복면허 취득하기’ 프로그램은 결혼에 대한 이해와 자기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 성 등의 주제로 다루는데, 이는 심리적인 측면으로 부부관계의 강화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가정학 접근을 통해서 본 이론적 모델인 순환 모델이 적용되었다. 이는 가정학의 전공한 개발자들의 특성이 반영되어 가족관계적 측면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4) 여기서는 용산구, 강북구, 서초구, 여수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결혼준비 교육프로그램 내용만 분석하기로 한다.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강북구 가정의 기능 강화와 가정 스스로 가정자원을 개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이 목표에 맞게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가정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다루는 재정 관리와 법률 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결혼초기는 가족구성원이 적기 때문에 필수 지출비가 적고, 소득활동도 가득하므로 경제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재정관리와 법률 정보는 가정학적 이론적 모델에서 미흡했던 부분으로, 그동안 가정학 전공한 개발자들이 소홀히 하였던 부분으로 최근 가정자원관리 측면 또한 중요한 과제임이 부각되고 있다.

반면, 여수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농촌 가정에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과 이로 가정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여,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국제결혼 예비부부 교육’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외국인 여성들과 농촌총각들의 문화적 차이에 따른 적응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의사소통의 기초기술을 익히는 것 등이 포함된다. ‘국제결혼 예비부부 교육’은 일주일에 한번 한 달간 생활 영어 등을 교육하며, 우선 신랑 우선교육 후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면 연계교육을 한다.

한편, 일정한 목적을 바탕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결혼준비 프로그램은 단체의 성격이나 단체 구성원의 성격에 따라 그 내용이나 방향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사) 한국행복가정상담소는 가족내의 불화와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설립되었으며, 이 취지의 영향으로 프로그램의 목적은 결혼과 가정에 대한 가치관 교육과 성숙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다지기이다. 프로그램은 결혼과 가정의 가치관 교육과 역할기대, 성생활

에 관한 내용과 성숙한 부부관계 유지를 위한 기본인 갈등 해결 및 효율적 의사소통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사) 청년여성문화원은 동양사상의 근본정신과 페미니즘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에서도 혼례예절과 실습을 통해서 혼인생활의 이해와 성생활에 대한 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진행은 6-7개의 주제로 봄과 가을에 각각 1회씩 2주간, 주제별 전문가의 강의 및 그룹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주 내용은 사) 한국행복가정상담소와 유사하게 결혼에 대한 가치관, 성생활, 의사소통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이한 부분은 우리전통의 혼인의식의 의미와 절차에 관한 부분이 포함된 것이다. 이것은 단체가 동양사상의 근본정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신혼부부대학’ 종교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신도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되고 있었다. ‘신혼부부대학’은 성경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결혼에 대한 이해를 주 내용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것은 신학적 접근의 이론적 모델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즉, 결혼준비교육의 목적이 성경에 비취진 결혼가치관에 대한 이해로서, 가정 안에서 종교활동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예비결혼학교’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유료로 실시하고 있었으며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자아상이해, 남녀특성의 차이, 의사소통, 라이프사이클 등으로 신학분야의 선행 모델에서 결핍되었던 기술적인부분까지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회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은 교육대상층이 신도들이며, 종교생활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교적인 색채가 강해서 일반인들이 접근이 어렵다.

기타 단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결혼아카데미

미', '결혼! 알고해야 합니다', '커플 & 예비부부', '결혼준비교실' 프로그램은 커플이나 예비부부, 그리고 일반인 등 대상의 폭이 매우 포괄적이며, 비용이 요구되는 교육이 주를 이룬다. 그 내용은 가정학 접근을 통해 살펴본 이론적 모델인 가정의 기능 강화 위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기타단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다른 기관들에 비해 교육 횟수가 더 많으며, 진행 방법도 게임, 강의, 심리검사, 심리극, 토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것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소나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기관별로 실시하고 있는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은 교회단체 프로그램인 '신혼부부대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정학적 모델을 바탕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것은 가정학적 접근을 통해서 보았듯이 과거 우리나라가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훈련이 부족한 문화적인 배경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결혼을 누구와 하는 것은 인생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결혼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다. 하지만 자신이 선택하여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결혼 초기 이혼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것은 서로 다른 성장배경을 가진 두 성인 남녀가 만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부부간의 부적응 문제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사회가 매우 급격히 변화하면서 결혼과 가족에 대한 과거의 가치관과 행동으로는 현재의 생활에 적절히 대처 할 수 없기에 가정이 해체되면서 많은 사회문제도 동반되고 있다.

가정안의 문제를 국가, 사회의 문제로 인식되면서 건강가정기본법이 200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도 가정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지원 부족과 가정정책도 없었던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가정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 유지·발전에 기여하며 이를 위해 국가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제정된 법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건강가정지원사업 중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교육사업으로 결혼준비 교육프로그램이 있다. 결혼준비 교육프로그램은 결혼 전 즉 가정을 이루기 전 미혼남녀·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건강한 가정의 모델을 제시해 줄 뿐 아니라 가족의 해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주목 받고 있다.

본 연구는 가족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결혼준비교육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의 준비단계로서,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방법 등 현황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연구가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강조되고 있는 결혼준비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내용을 고찰하고, 이에 근거하여 여러 기관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 실태에 대해 비교분석을 통해서 향후 결혼준비 기획 및 제공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연구결과, 초기 결혼준비프로그램은 심리학과 신학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후 현재까지 가장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는 신학과 가정학분야임을 알 수 있었다. 가정학적 접근으로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은 가정의 기능에

중점을 두고 의사소통기술·갈등해결방법 등의 기술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며, 신학 분야의 결혼준비 교육프로그램은 가정사역의 한 부분으로 종교를 바탕으로 두고 결혼의 가치관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관련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은 관련기관의 설립배경이나 구성원의 특성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이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주제 가운데 의사소통부분의 교육이 매우 일반적이면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의사소통 훈련이 부족한 문화적인 배경과 가정 기능의 강화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관에서 실시 중인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구성내용은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예로 농촌에서 국제결혼의 증가로 발생하는 가족문제의 예방을 위해 실시되는 여수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국제결혼부부교육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토대로 결혼준비교육 활성화하고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향후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공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준비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하고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기획과 제공의 문제를 보편성과 접근용이성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국민이면 누구나 손쉽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이나 시설의 확대 뿐 아니라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결혼준비 교육은 결혼 전 미혼 남녀를 주 대상으로 단기간 이루어지고 있다. 결혼은 미혼남녀의 단기적인 사건(event)이 아니

라 생애설계적인 차원에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교육을 통해 의무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결혼준비 교육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자기이해, 역할기대, 의사소통, 갈등해결, 생활설계, 결혼이해, 사랑과 친밀감 등의 주제는 학교교육을 통해서 연속적인 계획을 통해 교육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교육을 통해 스스로 인생설계가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장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접근을 통해 결혼과 가족생활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예비부부를 위한 특정 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사회 변화로 인한 새로운 가족문제의 발생- 예를 들어 가족해체, 저출산 문제 등 -과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는 결혼 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의 특정 예비부부교육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수료증 발급과 이를 증빙하여 결혼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서 발급제도 등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끝으로, 한국사회조사연구에서 실시한 2004년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따르면 중·고등학교생의 3.9%가 이성친구와 성관계 경험이 있고, 10명 중 5명 가량은 친하게 지내는 이성친구가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성 친구를 만나는 나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성인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은 연령과 대상을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국제화되고 다양화된 사회에서 국제결혼 등의 다양한 생활양식에 대처할 수 있는 결혼준비 프로그램이 요구됨은 자명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한적인 대상과 획일적인 내용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 당위성의 근거가 된다.

【참 고 문 헌】

- 1) 강북구건강가정지원센터(<http://www.gbhome.or.kr>)
- 2) 건강 문화원 (<http://www.familyculture.net>)
- 3) 결혼예비학교(1999). 한길 성결교회 결혼예비학교 프로그램 자료집.
- 4) 고병호(1994). 예비 부부교. 교육교회 220, 43-48.
- 5) 고선주, 이현아, 이기영, 최진아, 유우영(2003). 가족 및 관리의 통합적 접근에 기반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행복한 부부생활을 위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대한가정학회지 41(6), 47-61.
- 6) 국민일보. 2005년 10월 25일자. “가정복귀 후 또 학대받는 아동 작년 533건 신고 전년의 4배”.
- 7) 김경신, 이승미(2004). 건강가정기본법의 실천을 위한 건강가정 사업 및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357-370.
- 8) 김난희(1999). 그리스도인을 위한 결혼 예비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소그룹에서의 적용을 중심으로. 안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9) 김명자, 계선자, 박미석, 장진경, 김연화, 한은주, 류진아(2005).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용산구·숙명여자대학교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1), 25-49.
- 10) 김형주(1991). 기독교 가정을 위한 결혼준비교육에 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원 석사 학위청구논문.
- 11) 김혜석(1990). 결혼준비 성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12) 기독교대한성결교회(<http://www.kehc.org/>)
- 13) 동아일보. 2005년 11월 17일자. “술주정-폭행 20년 참았건만, 남편 목졸라 살해”
- 14) 명성교회(<http://www.msch.or.kr/>)
- 15) 박미경, 김득성(1997).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대한가정학회지 35(4), 47-77.
- 16) 방현주, 이기숙(2002).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통한 결혼초기 부부의 의사소통 능력 증진에 관한 연구- 유아기 가족의 부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11), 39-54.
- 17) 백지은, 서선영, 신수진(2003). 예비부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구성.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1), 1-27.
- 18) (사)한국행복가정상담소 (<http://www.e-happyhome.or.kr>)
- 19) (사)청년여성문화원(<http://www.cyw.or.kr/>)
- 20) 서선희(1998). 90년대 한국 가족의 변화와 가족생활의 방향. 한국가정관리학회(총회및 학술대회 자료집).
- 21) 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http://www.seocho.hfsc.or.kr>)
- 22) 양귀원(1991). 목회에 대한 교육적 접근/ 예비부부에 대한 교육.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활천 454, 86-90.
- 23) 여수시건강지원센터(<http://www.goodhome.go.kr/>)
- 24) 용산구건강가정지원센터(<http://sookmyung.ac.kr/~fscenter/>)
- 25) 유영주(1993). 한국가족의 기능 연구. 서울 : 교문사
- 26) 유희정(2005). 미국의 이혼 후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평가에 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43(6), 81-93.
- 27) 이숙희, 전영주(2004). 대학교양과정으로서 결혼준비교육의 성별에 따른 효과성

-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127-139.
- 28) 이영호, 최보아, 서미란, 지영숙(2004). 건강가정육성을 위한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개발-시민단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27-43.
- 29) 이현숙(1993). 결혼 준비교육을 위한 한 모형. 교육교회 202, 66-73.
- 30) 오윤자(1998).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의 교육학적 기초. 경희가족상담교육센터
- 31) 오윤자(2001). 교육학적 관점을 기초로 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1), 109-135.
- 32) 정미향, 김득성(2001). 결혼 전 관계향상 프로그램 구성 및 효과 검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69-84.
- 33) 정민자(1996).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373-392.
- 34) 정현숙(2004). 결혼전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91-101.
- 35) 정현숙(2005).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151-160.
- 36) 조희금 · 박미석(2004).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의이념과체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331-344.
- 37)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http://www.hhfc.or.kr>)
- 38) 지영숙(1998). 전통생활문화의 현대적 조명 : 전통 가정교육사상의 현대적 의미 -울곡, 다산의 교육관을 중심으로 -.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집 1, 1-27.
- 39) 한국가정법률상담소(<http://www.lawhome.or.kr/>)
- 40) 한국결혼지능연구소(<http://www.mqkorea.com/index.php3>)
- 41) 한국경제신문. 2003년 1월 10일자. “천자칼럼, 결혼 교육”
- 42)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4). 200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43) 한국YMCA전국연맹 (<http://www.ymcakorea.org/>)
- 44) 황영란(2005). 상담과 교회교육 : 부부교육 프로그램 (1) ; 결혼예비학교. 교육교회 331, 48-55.
- 45) 홍달아기, 신현실(2001).교과과정으로서의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W 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 한국가정과학회지 4(2), 29-47
- 46) David H. Olson. & John DeFrain. & Amy K. Olson. (1999). 21세기 가족문화연구소 역(2002). 행복한 결혼 건강한 가족. 서울 : 양서원
- 47) Galvin, K. & Brommel, B. (1996). *Family communication-cohesion and change*. NY: Harper Collins
- 48) Howse, Kevin John (1982), *The Empirical Development of Preparation for Marriage Curriculum for Twelfth-Grad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d.D. Andrews University.
- 49) Mace, D. (1979). Marriage and family enrichment -A new field. *The family Coordinator* 24(3), 131-136
- 50) Olson, D. H. & Hawley, D. H. (1992). *Prepare/ enrich self training counselor's manual*. Prepare/Enrich life Innovations, Inc.
- 51) Stahmann, R. F. & Hiebert, W. J. (1987). *Premarital Counseling*, Lexington Books. An Imprint of Macmillan, Inc.

52) Stahman, R. F. & Salts, C. J. (1993).
Educating for Marriage and Intimate
Relationships. *Handbook of Family Life
Education* Vol. 2. Sage Publications, 3-61.

53) Stainbrook, Pat Many Staebell (1978).
*Premarriage Awareness: A Study of the
Dynamics of Preparation for Marriage:
A Presentation of a Program Mod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d.
D, University of Northern Colorado.

(2006년 1월 12일 접수, 2006년 2월 23일 채택)